

양악 전돌증(Bimaxillary Protrusion)의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술시 고려 사항

서울중앙병원 치과 김재승·장현호
청아치과병원 김택수

성인의 양악 전돌증 치료시 교정치료를 일차적으로 고려 할 수 있으나 때로는 악교정 수술로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정 치료와 악교정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 두 술식간의 차이 및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치주적인 고려(Periodontal consideration)

성인의 교정치료시 기존의 치주적인 문제는 좋은 구강위생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교정치료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전돌증의 대부분에서 4개의 소구치를 발치하므로 많은 치아의 이동량 때문에 치주적인 문제의 악화를 염두에 두어야겠다. 하지만 수술 즉, 분절골 절단술에 있어서도 Segment 간에 bone gap이 생길 때 gingival recession이 심해지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치료 후 안정성 및 교합

교정치료시 기존의 확립된 구치교합을 변화시키므로 일시적이더라도 T.F.O.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mechanic의 사용에 따라서는 구치부들의 전방경사(mesial tipping)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교합력의 방향이 수직으로 가해지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잔존치주 조직에 위하는 물론 치료 후의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다.

3. 입술돌출도의 개선

양악전돌증례의 상당수는 하악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Dolicho face를 가진 경우이므로 교정치료시 구치부의 전방이동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전치부 후방이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면에 있어서는 수술(소구치 발치 및 전방부 Segmental osteotomy)로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4. 상악전치 각도, gummy smile의 개선

교정으로만 치료시 많은 치아 이동량으로 인해 전치부의 각도가 너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gummy smile이 악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악에서 분절골 절단술을 시행하면 상악전치의 각도 조절 및 intrusion의 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술시에는 전방 Segment의 rotation 즉, 각도에 대한 guide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술전 splint 제작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5. 환자의 환경차이 및 개인 차에 대한 고려

양악 전돌증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며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장기간 교정장치 부착이 힘들고 더욱이 anchor 보강을 위한 Head Gear 등의 구외 장치의 협조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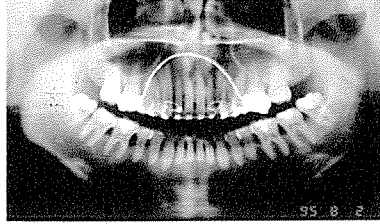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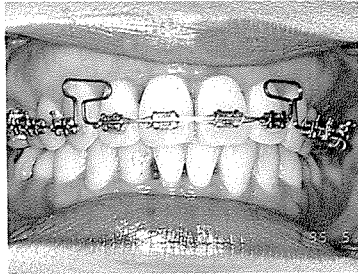


그림 1. 교정치료 시작시 방사선 사진으로 원래 다소의 치조골 흡수가 존재하는 등 치주상태가 불량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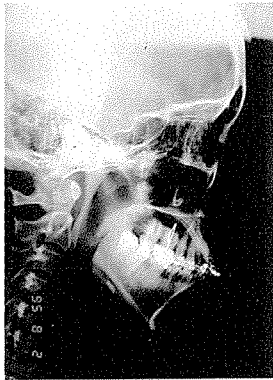


그림 2. 술전 술후 Cephalo 비교로 A point의 후방 위치 및 labioversion된 치아 각도도 correction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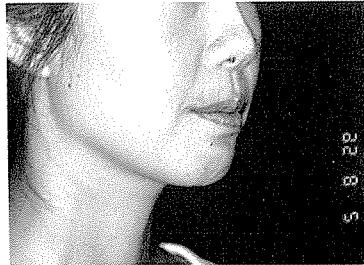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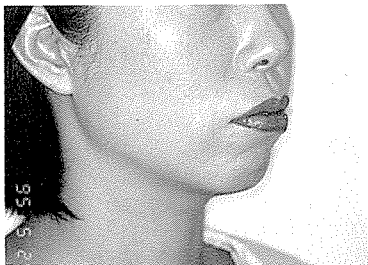


그림 3. 술전 및 술후 3주째의 안모 비교로 아직 연조직의 adaptation이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

대할 수 없다. 또한 심미적인 문제로 설측 교정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설측의 치관 길이가 짧아 치주조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교정에 대한 선택폭이 좁아지게 된다. 위의 경우들과

같이 교정치료가 여의치 못하고, 환자가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전방부 분절골 절단술에 의한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6. 안모의 심미성 평가 및 수술방법의 선택

전통적인 esthetic line을 기준으로 해서 안모의 심미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90° 측면에서만 판단하여 genio-plasty만으로 하악 pogonion을 전방이동시켜 양악전돌증을 Camouflage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환자의 입술 주위 긴장이 개선되지 않고 하안부가 커지는 것에 대한 환자의 불만족이 생길 수 있다. 또 일단 전방부 분절골 절단술을 계획하여 수술을 시행할 때는 무엇보다 환자의 입술 변화를 예측해 봐야 하겠는데 나이가 든 경우에는 조직의 elasticity가 떨어져 그 동안 감춰졌던 입술의 세로 주름선이 수술 후 현저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위에 상술한 것과 같이 양악 전돌증의 치료시 심미적, 기능적 만족을 위해서는 환자의 양상 및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다.

이번 증례는 양악 전돌증 환자로 치주적인 문제로 6전치의 Crowding만 교정으로 제거 후 제 1 소구치 발치 및 전방부 segmental osteotomy를 시행한 경우이다.